

2006년 3월 2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투자정책과 과장 김창룡, 사무관 여영섭 (2110-5354)

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차별화로 질 좋은 성장 구현 - 2006년 제2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 -

- 산업자원부는 '06. 3.27(월)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김종갑 제1차관 주재로 2006년 제2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「한옥테크노글라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(안)」 등 3건의 심의안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편을 골자로 하는 「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도 개선(안)」 등 5건의 보고안건을 의결 또는 논의하였음.
-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들어 다소 정체상태에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와 국가산업정책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
- 이와함께 최근(3.20) 정세균 산자부장관과 외국인투자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했던 외국인투자환경 관련 각종 애로사항의 개선에 대하여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투자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

□ 세부 안건별 주요 협의내용

① 「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(안)」 (보고안건)

-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하여 R&D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(현행 FDI 5백만\$ 이상)의 완화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신설 등 네트워크형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
- 외국인학교의 확대를 통한 외국인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개교후 3년간 가능한 외국인학교의 초기 운영비 지원을 앞으로는 5년간 (10년내 기간) 가능하도록 확대
- 외국인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(국비)지원을 강화
 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에 있어 진입도로, 용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, 앞으로는 전력 및 가스시설 설치를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인프라 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

※ 이날 논의를 통해 마련한 「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(안)」은 앞으로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추가협의를 거쳐 다음번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.

-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위와 같은 방향으로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여 네트워크형 투자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'질 좋은 성장'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② 「한옥테크노글라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」 심의

- 일본 아사히글라스가 향후 3년간 1,059억원(FDI 30백만\$)을 투자하여 PDP용 유리기관 생산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내 105,785㎡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 의결하였음.
- 동 투자로 PDP용 유리기관 분야의 최첨단 기술 전수와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2007년 이후 매년 7,000억원 ~ 8,000억원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와 2,5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기대되며, 동 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향후 7년간 법인세,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받게 됨.

③ 「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위촉」 심의

- 산업자원부장관이 제청한 安忠榮박사(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)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위촉건을 심의 의결함.

- 향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게 됨.

④ 「FDI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계획(안)」 보고

- 최근 정세상태에 있는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및 국내산업·경제 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의 역할 재정립, 향후 바람직한 투자유치 유망분야 선정 등을 포함한 향후 2015년까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고,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6월말까지 「FDI중장기 비전 및 전략」을 수립키로 하였음

⑤ 「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실적 및 계획」 보고

- '04. 3월 범정부차원으로 수립한 「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중장기계획」 이행실태 점검결과 금년 1/4분기까지 총 151개 과제중 79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추가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상반기중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
- 또한, 외국기업친화적 환경조성과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지원거점인 Invest KOREA Plaza 빌딩 준공과 연계하여 외투기업 인력채용 박람회, 국제세미나, 외국인투자 유공자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포함한 「Foreign Investment Week」 행사를 개최할 계획

□ 한편,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및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 등을 일반 국민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,

- 오는 2/4분기부터 외국인투자 통계DB를 전면 개편하고, 외국인투자 기업의 일자리창출 동향 등 보다 다양한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임
- 산업자원부는 한국신용평가(주)와 업무제휴를 통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투자유형(M&A·그린필드), 시점(신규·증액투자), 국가·업종통계 외에 외투기업의 기업현황, 재무, 고용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